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태고종 제15세 종정 보성당 두석 대종사 영결식이 7일 봉암사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중단장으로 엄수했다.

보성스님 영결식 1천대중 참석

태고종 제15세 종정 보성당 두석 대종사 영결식이 7일 오전 10시 봉암사에서 중단장으로 엄수했다. 대비식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원주 보림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태고종 임로 만봉스님 총임스님, 총무원장 인곡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임로 석주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원효종 종장 법홍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태고종 승장 덕암스님은 영결식 법어를 통해 "보성종성 예하시어, 그 크신 은혜와 공덕, 가르침으로 우리는 오늘날 경채난국을 극복하고 삼심된 인간도 존엄성과 도덕성, 사회질서를 되찾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밝은 세상 깨끗한 국토에서 사람이 사랑받게 살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월서스님(재심호계 위안장)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스님께서는 수행과 학덕을 겸비하신 큰 지도자이셨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의 염원을 듣고 스님의 미래면목을 시연해 주십시오"라고 추모했다.

오후 2시 법구가 원주 보림사 대비장에 도착하면서 엄수된 대비식은 재문남독에 이어 법구를 연화대에 넣는 입감의식, 거화의식, 하화의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례위원회는 9일 현재 1백30여대의 사리를 수습했다.



영결식에 참석한 월주스님들

茶毘 몸은 다시 물·불·바람·흙이 되고...



연화대 설치 방향 잡기.



오방수 준비.



오방수 향아리 물기.



연화대 기반 작업.



참나무를 쌓은 후 집으로 시키기.



집과 가마니로 둘러싼 연화대.



무명천과 향호지를 바른다.

'죽음은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 다비식 생사관 따른 장례절차

우리 몸은 죽어 어디로 가는가. (아람경)에서는 열반의 길을 4대(大地)수(水)화(火)풍(風)로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大)를 받은 사람은 목숨을 마치면 지대(地大)는 땅으로 돌아가고 수대(水大)는 물로 돌아가며 화대(火大)는 불로 돌아가고 풍대(風大)는 바람으로 흩어간다. 모두 무너지고 부수져 모든 기관은 공(空)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4대로 돌아갈 육신에 대한 애착으로 화장대신 '매장'을 선호하고 있다. 유교의 전통이 물어낸 우리나라도 매장문화의 뿌리가 매우 깊다. 때문에 전국토의 1%, 서울면적의 1.6배가 묘지로 뒤덮여가고 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2배의 국토가 묘지로 조성돼 물살을 알고 있는 것이다.

묘지문제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의 화장문화가 그 대안으로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개혁실천법국인국민협의회와 함께 '화장을 유인으로 남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비(荼毘)'는 불교적 가르침이 담긴 독특한 화장 장례의식이다. 다비는 벌어차피타(Jhapa)의 음역으로 화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불교전래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전승되고 있다.

다비는 산업(蠶業)을 닦아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불교의 생사관에 입각한 장례절차라는 데 큰 뜻이 있다. 가람(假舍)의 4대 육신이 자연으로 돌아가므로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다른 인연의 시작으로 보는 불교의 시각은 다비식을 새로운 상으로 통하는 영속한 문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비의식의 과정은 다비장 조성에서 채굴과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다. 다비의식을 상세히 기록한 문헌은 없으며, 전래되는 관습에 따라 다비장 설치와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다비장은 연꽃모양으로 조성되는데 먼저 터를 고른다. 그 뒤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부처님(오방불, 五方佛)께 귀의하고 사리 수습을 위한 오방수(五方水)를 묻기 위해 땅을 십자로 파 오방수 향아리를 만들고 기름을 뿌린다. 동근 구멍에 꼭 파놓은 형체인 다비장의 연화대는 높이 60cm가량으로 밑바닥은 구멍을 뚫어 깔판, 위는 콘크리트, 가운데는 법구가 모셔질 빈공간을 남겨두고 조성한다. 그런 다음 연화대는 다비식날 법구가 들어갈 입구만 남겨놓고 높이 2.8m, 직경 5m, 둘레 10m 정도가 되도록 참나무를 촘촘히 쌓는다. 참나무 더미를 질서로 그 둘레를 쌓고 가마니를 씌운 후 기름을 부어 태도록 한다. 연화대를 다시 흰색 무명천으로 빙둘러 감싸고 그 위에 향호지를 바른다. 그 위에 연일을 덮는 것으로 다비장 준비작업이 끝나게 되는데 연화대는 말 그대로 큰 연꽃이 된다. 다비장의 조성과정과 규모는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태고종 중앙불교대학 법배과 교수 영수스님은 다비장을 연꽃모양으로 꾸미는데 대해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중생이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법구가 다비장에 도착하면 재문남독에 이어 법구를 연화대에 넣는 입감의식을 거쳐 불경이 묵송되면서 참나무에 불을 붙이는 거화, 이를 연화대에 붙이는 하화가 거행된다.

이 때 거화편을 염송한다. '이 불은 선목의 불이 아니라 여러일등삼매(如來一證三昧)의 불이다... 이 불을 보고 지손의 광명을 쫓아 무성을 깨달으라.'

불은 1월·5월·9월에는 서쪽부터 거화하고 2월·6월·10월은 북쪽부터 놓고 3월·7월·11월에는 동쪽에서부터 놓고 4월·8월·12월에는 남쪽에서부터 놓는다. 이어서 죽은 이의 영혼을 지상으로 보내는 봉송의식(奉送儀式)을 행하고, 죽은 이의 영혼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것을 바라는 청의의식(靑依儀式),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수습하여 분쇄하고 흩어버리는 기골(起骨)·습골(拾骨)·쇄골(碎骨)의식을 행한다.

'한번 뒤집으니 허망한 몸통이 가마늘대로 구르며 찬바람을 일으킨다. 취해도 얼지 못하고 버려도 얼지 못하니 이것이 무엇인가. 뜨거운 불 속에 한 줌의 황금씨를 이제 쇠소리가 멎고 허허하며 불꽃을 부수어 청산 녹수에 뿌리노니 배생불발의 심성만이 찬치를 덮고도 남음이 있을이다.' 이렇게 법어의 황희심이 다비장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환귀본토



흙과 물, 불, 바람이 인연이라 모였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 다비의식은 이 자연귀의의 인연법을 따르는 불교의 장례법이다.

진언(禪淨本土眞言) '유지나 사다모'를 염송하며 영가가 보낸대(寶蓮燈)에 오를 것을 발원한다. 월인스님의 영가시어(靈歌詩語) 한 구절은 다비의식의 의미와 영안을 간결히 전해준다.

'법신은 온 세계에 가득차서 인간과 천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물따라 달 그림자 못 속에 나타나듯 마른 몸은 연대에 앉히소서.'

글=도원선 기자(psd0@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nia.com)



연일 물이기, 큰 연꽃 모양을 한 연화대, 법구를 연화대에 넣는 입감의식, 불을 붙이는 거화의식, 습골(사신제공=선암스님)